



태국 북부에서 72호(2022/06/06)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고전6:14)

พระเจ้าได้ทรงชุบให้อีกพระองค์ผู้เป็นเจ้าเป็นขึ้นขึ้นมาใหม่ และพระองค์จะทรงชุบให้เราทั้งหลายเป็นขึ้นขึ้นมาใหม่โดยฤทธิ์เดชของพระองค์

사왓디카~ 안녕하세요! 맹더위에 마스크까지 꺼야 했기에 유난히도 힘들었던 한여름을 막 비껴나
우기철의 문턱에 들어선듯 합니다. 올 해는 코로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듯해 정부가 3년만에 송끄란
(태국 신년) 축제를 허용해서 가족과 고향을 찾을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물을 뿌리는 등의 흥겨운
축제는 할 수 없었으나 가족 상봉이 허락되어 그나마 감사한 명절이 되었지요.

한편 육로로 국경을 접한 이웃나라들과도 닫혔던 문을 다시 개방하기 시작했으나 북부 미얀마와의
육로 개방 직 후에 두 나라를 잇는 다리에서 폭탄이 터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다시 일단 차단을 하고
수습 중에 있다고 합니다.

♥ 부활절 예배

부활 주일은 연중 가장 더운 시기에 축하하는 교회절기인데, 태국에서는 성탄절만큼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는 듯해 늘 안타깝게 생각해 왔는데, 올 해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믿음은 헛 짓임을 강조
하고 영적인 소망을 가질 것을 독려하며, 오랜만에 송끄란으로 만나게 될 가족들에게 참 소망되신 예수님
에 대해 나누고 교회에도 초대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들도 12명의 한국어반 학생들을 부활 주일날 초청했지만, 송끄란과 겹쳐 고향으로 떠난 형제
들도 있고, 가족모임 등 다양한 이유로 5명의 형제들만 생전 처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므앙’
은 평소에도 교회에 출석하는 형제이기에 이들 5명이 낯설어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고 목사님과 성도님들
께 인사도 시켜 드리는 모습이 참 대견스럽고 감사했습니다.

태국 교회는 대부분 예산 부족으로 예배 직후, 점심식사 교제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 날에는 삶은
달걀과 함께 풍성한 식사를 함께 나누며 성도들간의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초대한 5
명 외에도 성도들이 초청한 다른 새로운 얼굴들이 있어, 저의 학생들은 2 신학생들(‘카이’와 ‘무이’)
에게 맡겨두고 저희들은 그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위의 말씀처럼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죽
음에서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새로운 이웃들과도 나눌수 있어 너무나
감격스런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방학을 맞아 다양한 교회들과 집안 일을 돕고 있던 파야오 2 신학생들도 이번 주일은 이 교회에
참여해서 찬양 인도도 하고 예배 후 5명의 손님, 그리고 므앙과 함께 8명이 따로 만남의 시간을 갖었는
데, 1기 한국어반이었다가 신학생이 된 2 형제들의 이야기를 이미 들려줬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대면
인사와 함께 간증도 듣고 예수님 믿고 변화된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어 공부와
미래의 계획들에 대해 서로 나누며 격려와 응원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 태국 노동부, 올해 노동력 5만명 수출 목표

지난달 노동부 장관이 태국인 노동자가 사우디에서 왕족 보석을 훔쳐 태국에 가져온 일명 ‘블루
다이아몬드 사건(Blue Diamond Affair)’으로 30년 이상 냉각 상태였던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노동력
수출에 관한 조인식을 가진 것으로 많은 태국인 노동자들이 사우디에서 다시 일할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감염 우려로 각국의 입국 제한이 많았으나 이제는 그 제한이

완화되어 태국인의 해외 취업이 쉬워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내의 관광 수입은 축소되고 노동력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의 길도 막혀서 태국으로서는 경제적으로 힘겨운 때를 보내고 있었기에 올 해 노동력 수출 목표 달성 의지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저희들의 한국어반 운영을 통해 합법적으로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 한국어반 2기 학생들의 시험과 합격소식

5월 말 12인의 2기 학생들이 한국어 능력시험을 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는 방학기간이었으나 이들과 시험 공부를 마무리 하느라 함께 긴장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네요. 아직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긴 한데, 저희들끼리 답안을 맞추어 본 결과 8~9명은 합격이 될 것 같습니다. 늦게 합류했던 ‘므앙’도 합격할 듯 합니다. 6월 중순에 발표가 나고 합격된 학생들은 한국노동부를 통해 일자리를 얻게 되면 바로 출국해서 기다리던 외화벌이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번에 떨어지는 학생들은 다시 저희들과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도 있고,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들의 입소문으로 새로운 학생들 인터뷰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좋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한국어 교원 자격증 공부

제가 그 동안 한국어를 지도하며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영어와 헬라어를 지도할 때는 문법적인 것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오히려 모국어인 한국어를 지도하면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긴장이 되기도 해서 웹사이트로 한국어 문법과 구문 등의 자료 등을 찾고 도움을 받아 오던 중 제가 필요한 자료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공부하는 특수자료로 개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정과 시간의 부담으로 이 자격증 공부에 대한 도전을 고민해 오던 중 마침내 온라인 평생교육원(16과목 이수 목표)을 통해 이 달 초부터 막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사역 일정을 소화해 가면서 해야 하기에 한번에 2~3과목씩만 신청할 예정입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시작이 반이라는 말에 용기를 얻어 차근 차근 공부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좋은 한국어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지혜와 체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 ‘사이’ 와 ‘므앙’ 가족

이 가족과는 일주일에 적어도 3~4번은 만남을 가지고 있고 사석에서 만날 때는 저희들을 ‘어머니’ ‘아버지’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이는 딸을 안고 한국어 공부반 직전, 후에 저를 도와 간식과 먹거리를 챙기는 일을 돕고 있고, 어린 딸이 아빠 므앙에게 가려고 칭얼대지 않을 때는 수업 시간에 잠깐 앉아있기도 합니다. 그녀를 만날 때마다 연대기를 따라 성경인물 이야기를 “Story Telling” 하듯이 쉽게 일상적인 단어로 들려주면 그녀는 제가 나누었던 것과 자신이 직접 성경본문의 단어들을 찾아 주일 학교 학생들에게 더 재미있게 들려주곤 합니다. 그녀는 지혜와 영리함이 남달라 무엇이든 가르쳐 주면 플러스 알파(+a)를 이해하는 자매이며 가르치는 은사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차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되는 귀한 “딸”입니다.

♥ 기도제목

- * ‘사이’ 와 ‘므앙’ 가정의 영적인 성숙과 ‘카이’ 와 ‘무이’ 신학생들이 체험있는 주의 종들로 성장하도록
- * 부활신앙이 심겨진 5인의 형제들이 장차 영적인 열매를 맺을수 있도록
- * 한국어반 3기 학생들 모집에 새로운 좋은 만남과 교제가 있도록
- * 저의 자격증 공부와 시간관리에 지혜를 얻도록

현지연락처 : 93damascus@gmail.com 66-817248202 (Mobile)

Phayao Bible Seminary, Meuang, Phayao 56000, Thailand / 국민은행 852502-04-007477 (서정실)